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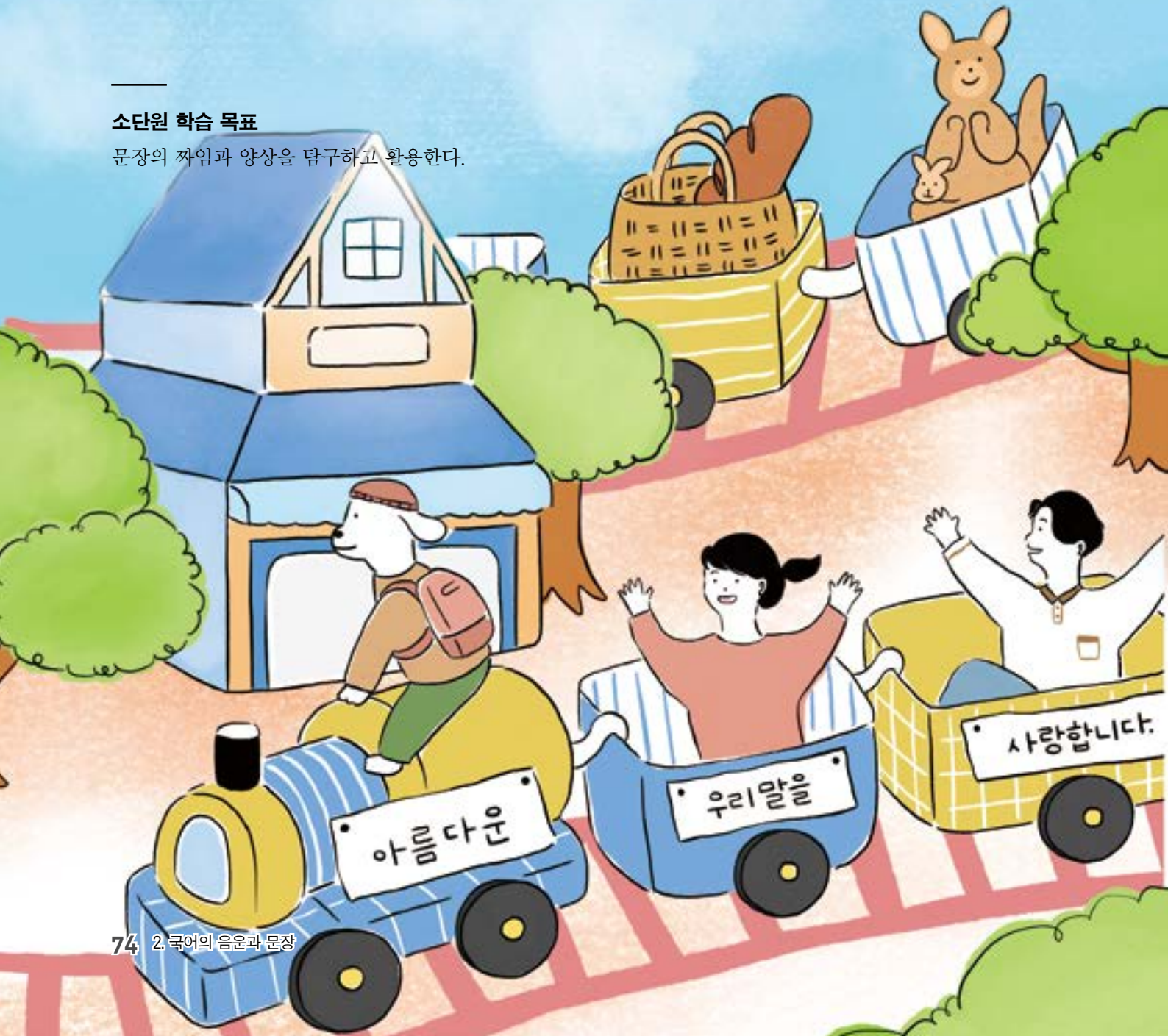
[2]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소단원 학습 목표

문장의 짜임과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 다음 그림에서 제시된 설명의 밑줄 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골라 보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을 그리고 있다.



다음은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에 관해 설명한 글이다. 문장의 짜임에 따라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하며 글을 읽어 보자.

문장의 짜임과 표현 효과

홀문장과 겹문장

문장은 생각이나 감정을 말과 글로 표현할 때 완결된 내용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언어 단위이다. 글의 경우 각각의 문장 끝에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등의 문장 부호가 쓰여 문장이 완결되었음을 나타낸다. 문장이 완결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성요소를 필요로 하는데, 문장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구성 요소가 바로 문장 성분이다. 5 10

문장을 이루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장 성분은 주어와 서술어이다. 따라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느냐에 따라 문장을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 비가 내린다.
주어 서술어

㉡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학교 앞마당에 벚꽃이 피었다.’가 홀문장인지 겹문장인지 말해 보자.

- ㉔ 맑은 물이 졸졸 흐른다.
→ (물이) 맑다. + 물이 졸졸 흐른다.
- ㉕ 아버지는 책을, 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신다.
→ 아버지는 책을 (읽으신다.) + 어머니는 신문을 읽으신다.

그런데 어떤 문장은 주어나 서술어 가운데 하나가 생략되어 겹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에서는 첫 번째 서술어 ‘맑다’의
10 짝인 주어 ‘물이’가 생략되었고, ㉡에서는 첫 번째 주어 ‘아버지는’의 짝인 서술어 ‘읽으신다’가 생략되었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 홀문장인지 겹문장인지 파악할 때에는 생략된 문장 성분이 없는지 살펴
봐야 한다.

이어진문장

15 겹문장은 홑문장들이 결합되는 방식에 따라 이어진문장과 안은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이어진문장은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나란히 이어진 문장이다. 이어진문장은 다음과 같이 대
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하늘은 맑다. + 바람은 잠잠하다. =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잠잠하다.

•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눈이 왔다. + 길이 미끄럽다. =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결합된 문장이다. 일반적으로 대등하게 이어진 홑문장 사이에는 나열, 대조 등의 의미 관계가 발견된다. 대등적 연결 어미에는 ‘-고’, ‘-(으)며’, ‘-지만’, ‘-(으)나’ 등이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두 개 이상의 홑문장이 대등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종속되어 결합된 문장이다. 이때 종속된 문장은 그렇지 않은 문장에 관해 일반적으로 원인, 조건, 의도 등의 의미 관계를 갖는다. 종속적 연결 어미에는 ‘-(아/어)서’, ‘-(으)니’, ‘-(으)면’, ‘-(으)려고’ 등이 있다.



안긴문장과 안은문장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하고 이 안긴문장을 포함한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이때 안긴문장은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구분된다. 다음 문장에서 절을 찾고, 그것이 전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자.

- ㉠ 나는 민수가 오기를 기다렸다.
- ㉡ 그 책은 내가 읽던 책이다.
- ㉢ 나는 눈이 아프도록 책을 읽었다.
- ㉣ 다운이는 마음씨가 예쁘다.
- ㉤ 기호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위 예문에서 ㉠~㉤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안긴문장을 표시한 것이다. ㉠의 안긴문장은 ‘민수가 오-’에 어미 ‘-기’가 결합한 것으로, 전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문장에서 명사처럼 주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을 명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명사절을 만드는 어미에는 ‘-기’ 외에 ‘-(으)ㄴ’이 더 있다.

㉡의 안긴문장은 ‘내가 (책을) 읽-’에 어미 ‘-던’이 결합한 것으로, 전체 문장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문장에서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을 관형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관형절을 만드는 어미에는 ‘-던’ 외에도 ‘-(으)ㄴ, -는, -(으)ㄹ’이 더 있다.

㉢을 어미 ‘-(으)ㄴ’이 결합한 관형절을 가진 안은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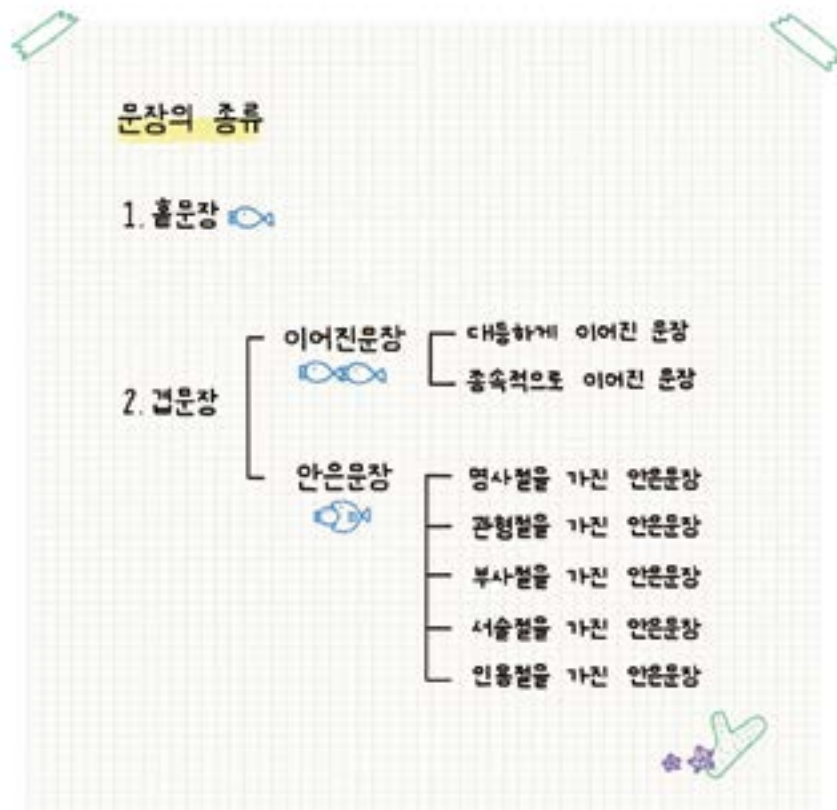
㉣의 안긴문장은 ‘눈이 아프-’에 어미 ‘-도록’이 결합한 것으로, 전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을 부사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부사절을 만드는 어미에는 ‘-도록’ 외에 ‘-게’ 등이 더 있다.



㉔의 안긴문장 ‘마음씨가 예쁘다.’는 전체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이처럼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안긴문장을 서술절이라고 한다. 서술절은 다른 안긴문장과 달리 특별한 표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㉕의 안긴문장은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에 조사 ‘라고’가 붙은 것이다. 이처럼 남의 말이나 글에서 따온 안긴문장을 인용절이라고 한다. 인용절에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할 경우에는 ‘라고’가 쓰이고, 인용하는 사람의 표현으로 바꾸어 간접 인용할 경우에는 ‘고’가 쓰인다.

이상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장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장의 표현 효과

겹문장을 홀문장으로 나눌 수 있듯이 홀문장을 합쳐 겹문장으로 만들 수도 있다.

- ㉠ 내가 어제 영화를 보았다.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 ㉡ 내가 어제 영화를 보았는데 그 영화는 재미있었다.
- ㉢ 내가 어제 본 영화는 재미있었다.
- ㉣ 내가 어제 재미있는 영화를 보았다.

홀문장으로 이루어진 ㉠을 겹문장 ㉡, ㉢, ㉣로 만드는 데 쓰인 어미를 각각 적어 보자.

- ㉠은 두 개의 홀문장이고 ㉡은 ㉠을 하나의 이어진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과 ㉣은 ㉠을 하나의 안은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문장의 표현 효과에 따라서 홀문장, 이어진문장, 안은문장 등을 골라 활용할 수 있다.

- 홀문장은 대체로 짧고 단순한 반면 겹문장은 대체로 길고 복잡하다. 짧고 단순한 문장은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느낌을 준다. 사건의 빠른 진행을 서술하거나 핵심을 요약할 때 홀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반면에 길고 복잡한 문장은 느슨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깊은 생각의 흐름을 표현하고, 관찰 대상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 앞뒤 관계에 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에는 겹문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문장의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를 잘 알고 의사소통을 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홀문장과 겹문장의 특성을 떠올리며 제시된 활동을 해 보자.

- ㉠ 민호가 책을 읽는다.
- ㉡ 민호가 나에게 책을 주었다.
- ㉢ 나는 민호가 나에게 준 책을 읽었다.
- ㉣ 나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다.

(1) 다음 [예]를 참고하여 ㉠~㉣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예 하늘이 맑다.
 주어 서술어

(2) ㉠~㉣을 홀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어 보고, 그렇게 나눈 까닭을 말해 보자.

홀문장	겹문장

● 그렇게 나눈 까닭:



목표

2 [보기]에 제시된 연결 어미를 활용하여 ㉠~㉤에 제시된 두 흠문장을 주어진 의미 관계에 맞게 각각 연결해 보자. 그리고 연결한 문장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인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지 말해 보자.

보기

-(아/어)서

-고

-지만

-(으)면

-(으)려고

눈이 내린다.



날씨가 따뜻하다.

㉠

→ '대조'의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바람이 분다.



비가 온다.

㉡

→ '나열'의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책을 많이 읽는다.



생각이 깊어진다.

㉢

→ '조건'의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산에 오른다.



우리는 일찍 일어났다.

㉣

→ '의도'의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길이 미끄럽다.



철수가 넘어졌다.

㉤

→ '원인'의 의미를 지닌 문장으로:



목표

3 ㉠~㉣에 제시된 흘문장을 각각의 조건에 따라 결합하여 안은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	장군은 알아차렸다.	+	군대가 함정에 빠졌다.
	→ 명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	나는 인아를 만났다.	+	눈이 예쁘다.
	→ 관형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	그는 웃었다.	+	배꼽이 빠지다.
	→ 부사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	철수가 재빠르다.	+	동작이 재빠르다.
	→ 서술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	철수가 말했다.	+	제가 하겠습니다.
	→ 인용절을 가진 안은문장으로:		



4

제시된 활동을 하며 이어진문장과 안은문장의 특성을 탐구해 보자.

- (1) 제시된 문장이 어색한 까닭을 말해 보고, 의미 관계를 살펴 뜻이 명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고쳐 써 보자.

㉠ 민수는 책을 읽으며 서희는 노래를 부른다.

- 어색한 까닭:
- 자연스럽게 고친 문장:

㉡ 날씨가 춥지만 따뜻한 옷을 입어라.

- 어색한 까닭:
- 자연스럽게 고친 문장:

- (2) 다음은 홀문장을 결합하여 안은문장으로 만든 것이다. 홀문장이 안은문장으로 바뀌면서 생략된 말을 찾아보자.

우리는 복숭아를 먹었다.

+

복숭아가 잘 익었다.

→ 우리는 잘 익은 복숭아를 먹었다.

- 생략된 말:

내가 2005년에 태어났다.

+

2005년에 가뭄이 심했다.

→ 내가 태어난 2005년에 가뭄이 심했다.

- 생략된 말: